

한국금융학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의 혜택과 위험

2022. 02. 09

박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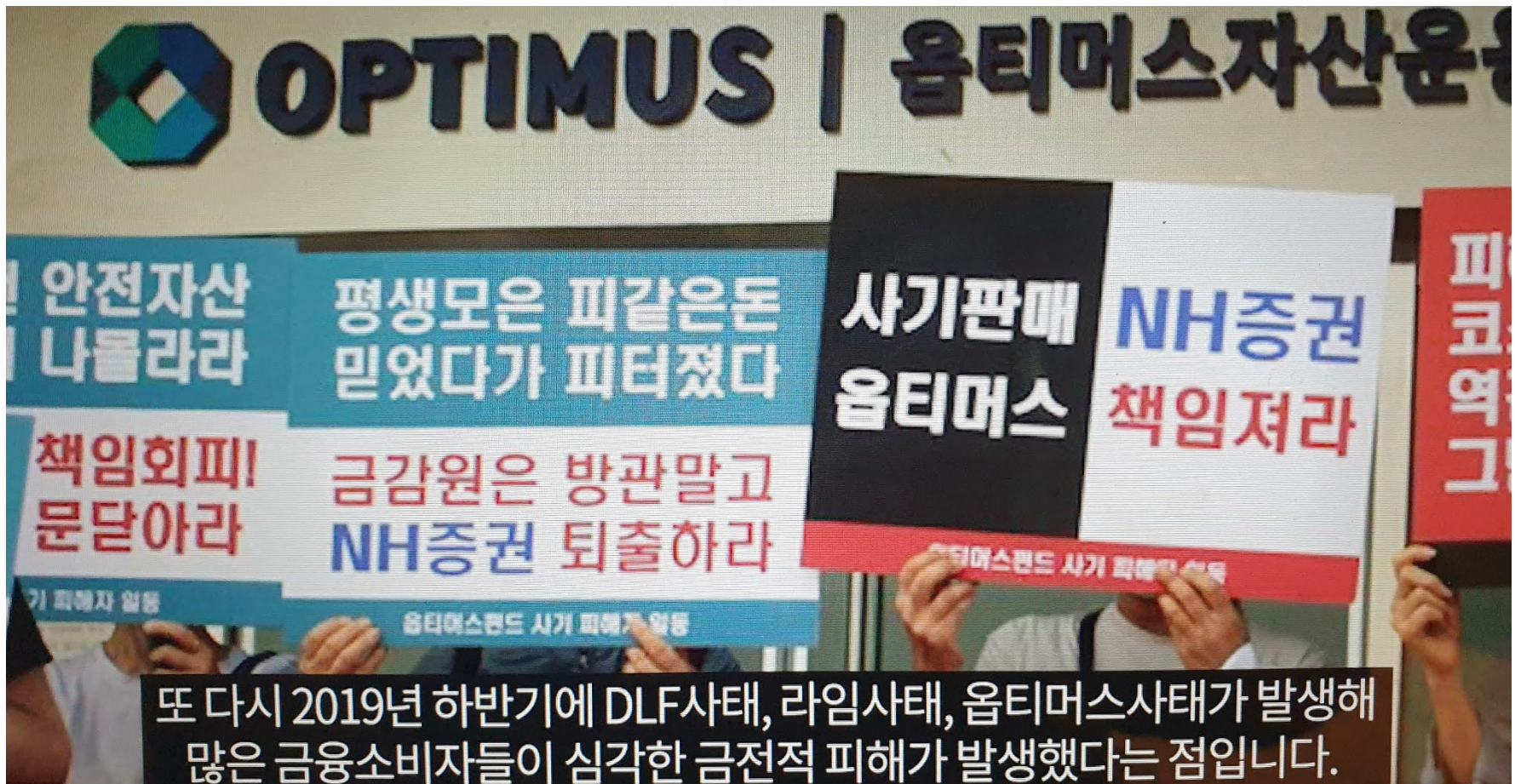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마이데이터코리아 허브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부터 얘기가 되었으나 2020년3월에 제정되었다. 금소법 시행은 2019년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위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반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올해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활용 제도보다는 보호 제도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2010년 중반부터 데이터 활용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의 GDPR 법안에 영향을 받아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데이터3법 중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소비자에 관련된 제도와 개인정보에 관련된 제도는 비슷해 보이나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 소비자보호 제도는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반면에 마이데이터 제도는 조직과 개인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데이터주권을 위한 제도이다. 본 발표는 마이데이터 사상과 제도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지난 50년 동안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다보스포럼(WEF)에서 개인데이터를 21세기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예측하였다. 개인 중심의 데이터생태계는 미국의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정책과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이 주도하였다.
-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기업에서 개인 본인에게 이동하는 새로운 데이터생태계를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생태계를 구현하여 자신의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생태계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구현할 수는 없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은 오퍼레이터이다.
- 우리나라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퍼레이터의 역할과 데이터 서비스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오퍼레이터는 신뢰성이 중요하고 데이터서비스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매출과 수익 보다는 소비자 혜택과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PFMS 등의 금융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되었다.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는 비금융서비스와 융합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는 금융 제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우리나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통 금융기관, 핀테크, 빅테크의 3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빅테크 그룹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경쟁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3그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주권 개념이 중요해 지고 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마이데이터 개념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금융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부터 얘기가 되었으나 2020년3월에 제정되었다.
- 2019년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위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용정보법 개정

-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활용 제도보다는 보호 제도에 집중하였다.
- 하지만 2010년 중반부터 데이터 활용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 유럽연합의 GDPR 법안에 영향을 받아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11년) 개인정보보호

(‘05년) 위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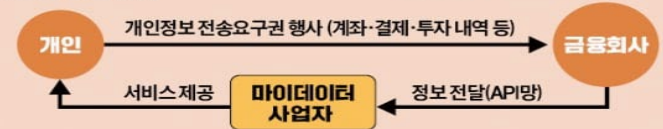
데이터 보호 중심 시기

(‘95년) 신용정보법

(‘99년) 정보통신망법



마이데이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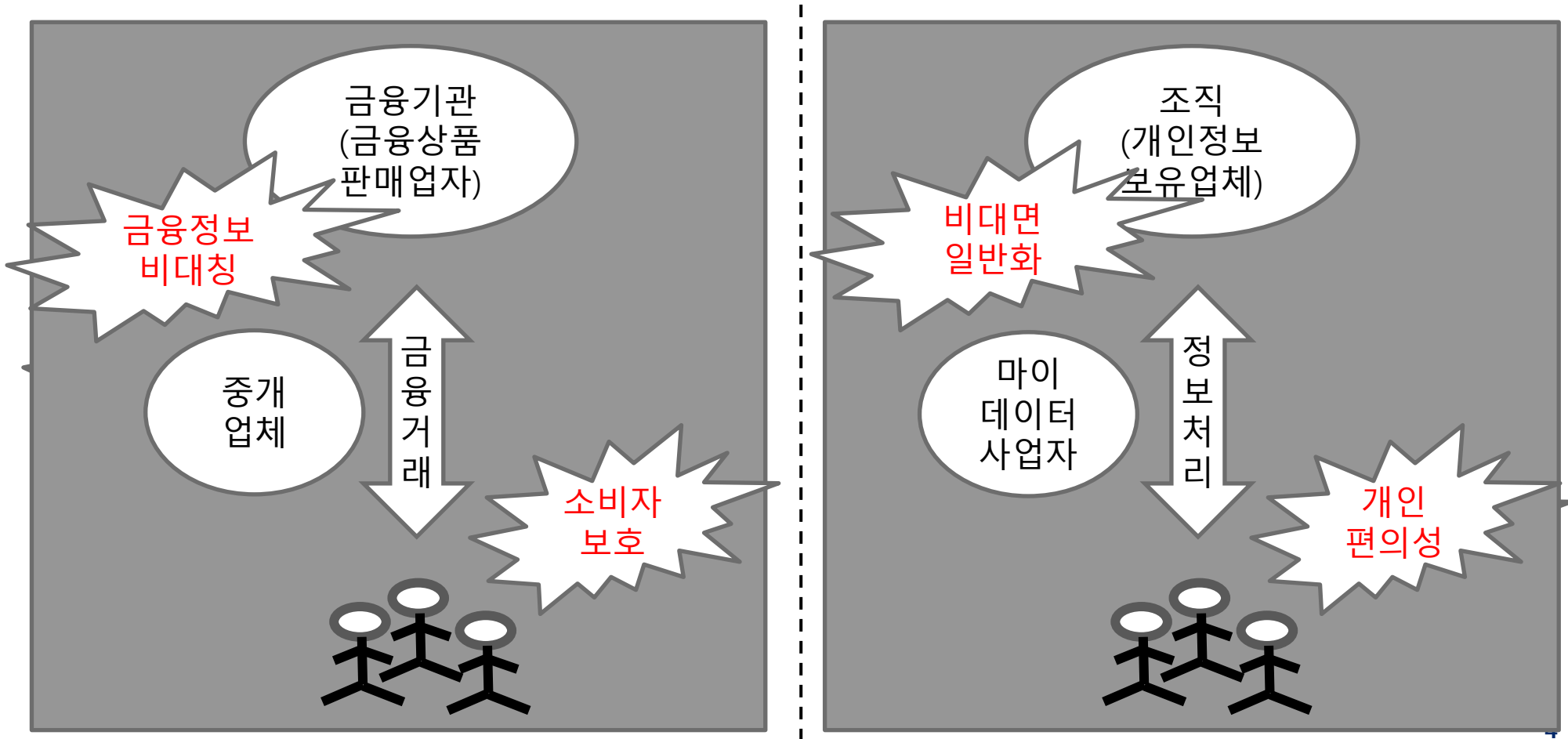
은행	국민·신한·하나 농협 우리은행 등 10개사
보험·금융투자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
여신전문	신한·국민·현대카드 등 7개사
상호금융·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핀테크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 19개사
IT	LG CNS

※본허가 45개사·예비허가 업체는 신한생명 등 11개사, 10월 13일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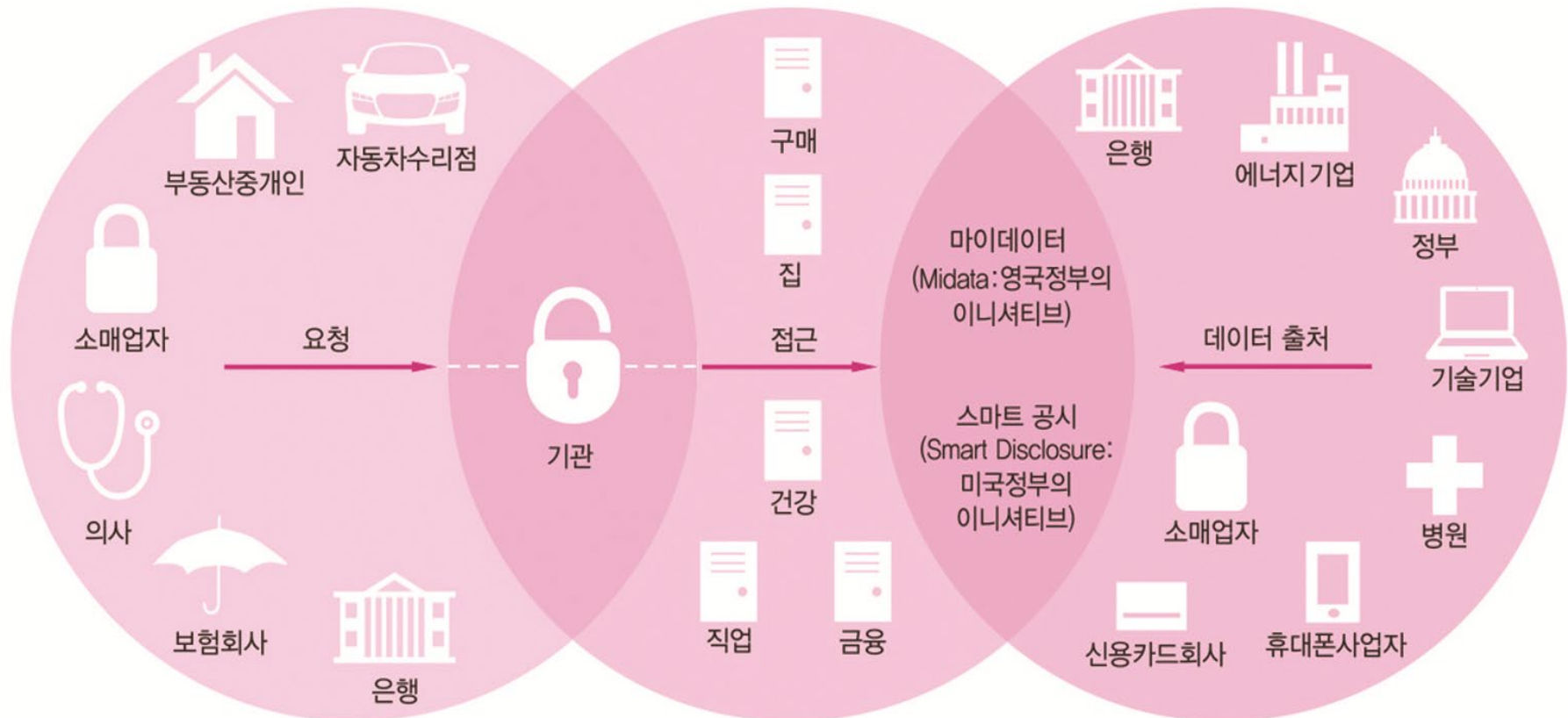
3. 소비자보호 대 마이데이터

- 소비자에 관련된 제도와 개인정보에 관련된 제도는 비슷해 보이나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
- 소비자보호 제도는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 마이데이터 제도는 조직과 개인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데이터주권을 위한 제도이다.



4. 개인데이터 생태계와 마이데이터

- 지난 50년 동안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 다보스포럼(WEF)에서 개인데이터를 21세기의 모든 분야를 연계할 새로운 경제적 자원이라고 예측하였다



5. 스마트공시정책과 버튼서비스

- 미국의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이란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베스트셀러 책인 'Nudge'에서 소개된 RECAP(Record, Evaluation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의 영향을 받아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마트공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 연방기관 및 기업들이 사용자 친화적이며 전자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품, 서비스 및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제공되고, 개인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인 개인이 선택한 대상에게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 스마트 공시의 세부정책으로 의료 분야의 블루버튼, 에너지 분야의 그린버튼, 교육 분야의 마이스튜던트데이터버튼, 태양광 분야의 오렌지버튼 등이 있다.

의료- 블루버튼	에너지- 그린버튼	교육- 마이스튜던트데이터버튼	에너지- 오렌지버튼
 Blue Button Download My Data	 Green Button Download My Data	 MyStudentData Download	 ORANGE BUTTON

자료원: Joel Gurin, Open Data Now 2013

6. 마이데이터 글로벌 설립

-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기업에서 개인 본인에게 이동하는 새로운 데이터생태계를 의미한다.
- 2018년에 설립된 MyData Global은 전세계에 마이데이터 사상을 보급하고 있다.
- 전 세계 27개 허브 중, MyData Korea Hub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설립되었다.

MyData Global

- ✓ **International** nonprofit
- ✓ Headquartered in **Finland**
- ✓ Founded in **2018**
- ✓ Over **500** members
 - Including over **90** organizations
 - From over **50** countries
- ✓ **27** local hubs on **6** continents
- ✓ Emerging international **thematic groups**
- ✓ Organizer of the leading **personal data conference**



7. 마이데이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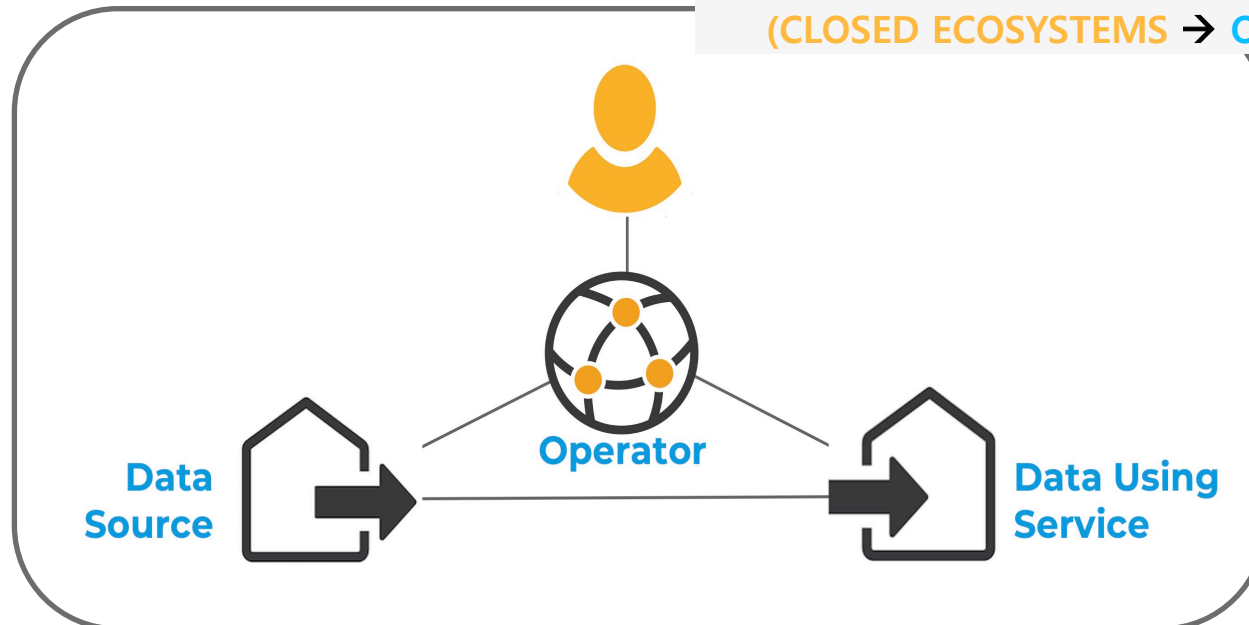
- 개인 데이터생태계를 구현하여 자신의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 이러한 개인 데이터생태계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구현할 수는 없다.
-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핵심은 오퍼레이터이다.



데이터생태계와 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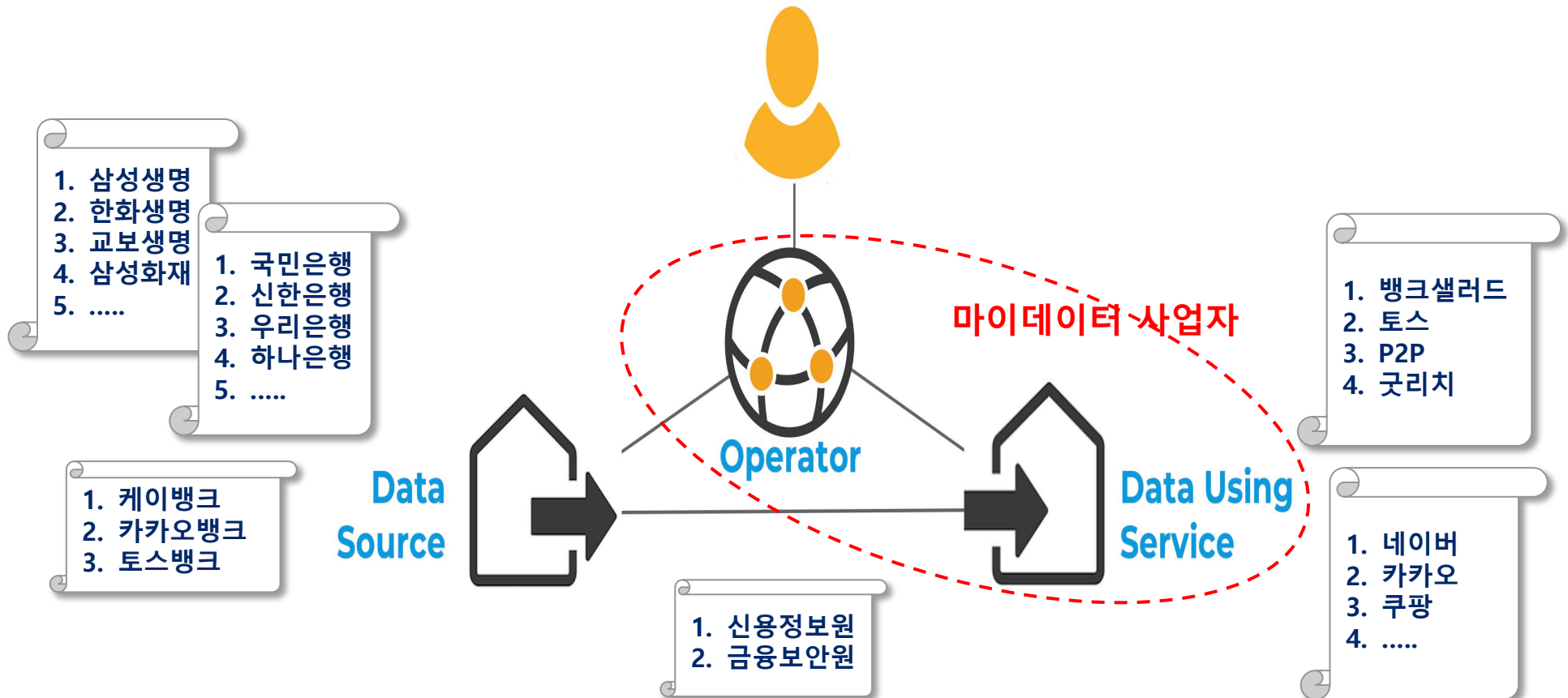
마이데이터 선언문 – 3가지 변화 방향

1.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FORMAL RIGHTS** → **ACTIONABLE RIGHTS**)
2. 데이터보호로부터 데이터 권한 강화로
(**DATA PROTECTION** → **DATA EMPOWERMENT**)
3.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CLOSED ECOSYSTEMS** → **OPEN ECO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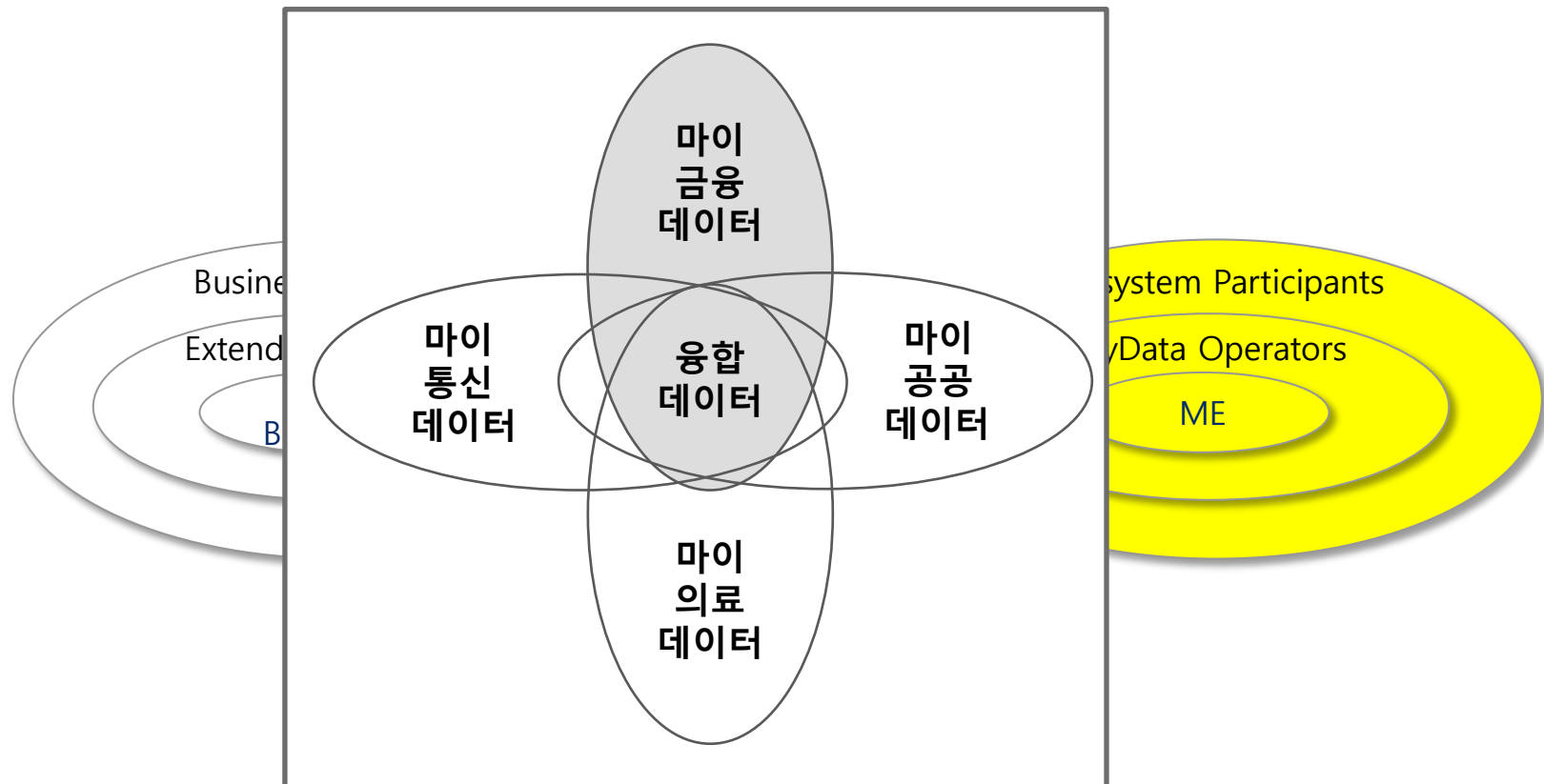
8.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신뢰성 대 창의성

- 우리나라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퍼레이터의 역할과 데이터 서비스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 오퍼레이터는 신뢰성이 중요하고 데이터서비스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9. 산업 중심 서비스 대 개인 중심 서비스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매출과 수익 보다는 소비자 혜택과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 PFMS 등의 금융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되었다.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는 비금융 서비스와 융합 되어야 한다.



10. 금융기관 대 핀테크 대 빅테크

- 우리나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통 금융기관, 핀테크, 빅테크의 3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빅테크 그룹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경쟁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3그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사용자 편의성



신규 비즈니스 기회



개인의 데이터 통제



사용자 편의성



신규 비즈니스 기회



개인의 데이터 통제



MyData Operator Model



사용자 편의성



신규 비즈니스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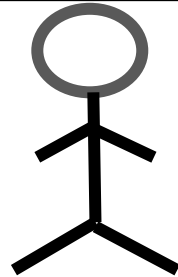
개인의 데이터 통제



11. 제언: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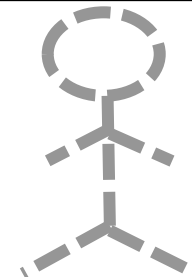
-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주권 개념이 중요해 지고 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마이데이터 개념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 정보기술이 발전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금융 마이데이터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다.

전통적인 시대의 개인



- 개인
- 헌법 10조 기본권 (자기 결정권)
-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주민등록증 중심
- 공인인증서 + 조직 데이터 접근

디지털 시대의 개인



- 디지털 트윈
-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스마트폰 중심
- 디지털 아이덴티티 + 마이데이터 관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